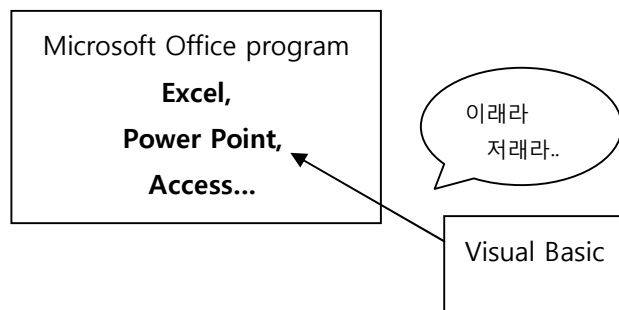


제 1 강. VBA라는 리모컨을 갖자!

VBA(Visual Basic for Application)

글자 그대로 생각해보면, VBA라는 것은 'Application을 위한 Visual Basic'이다. 여기서 application이라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Office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고, Visual Basic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말한다. 말만 거창하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용자가 조금 더 자신에 맞게 Office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있도록 Visual Basic이라는 리모컨을 선물했다고 생각하면 쉽다. 우리는 엑셀의 시트 상에 직접 값을 입력하고 계산 할 수도 있지만, 마치 TV를 볼 때 멀리서 리모컨으로 '딕딕' 채널을 돌릴 수 있는 것처럼 VB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엑셀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Visual Ba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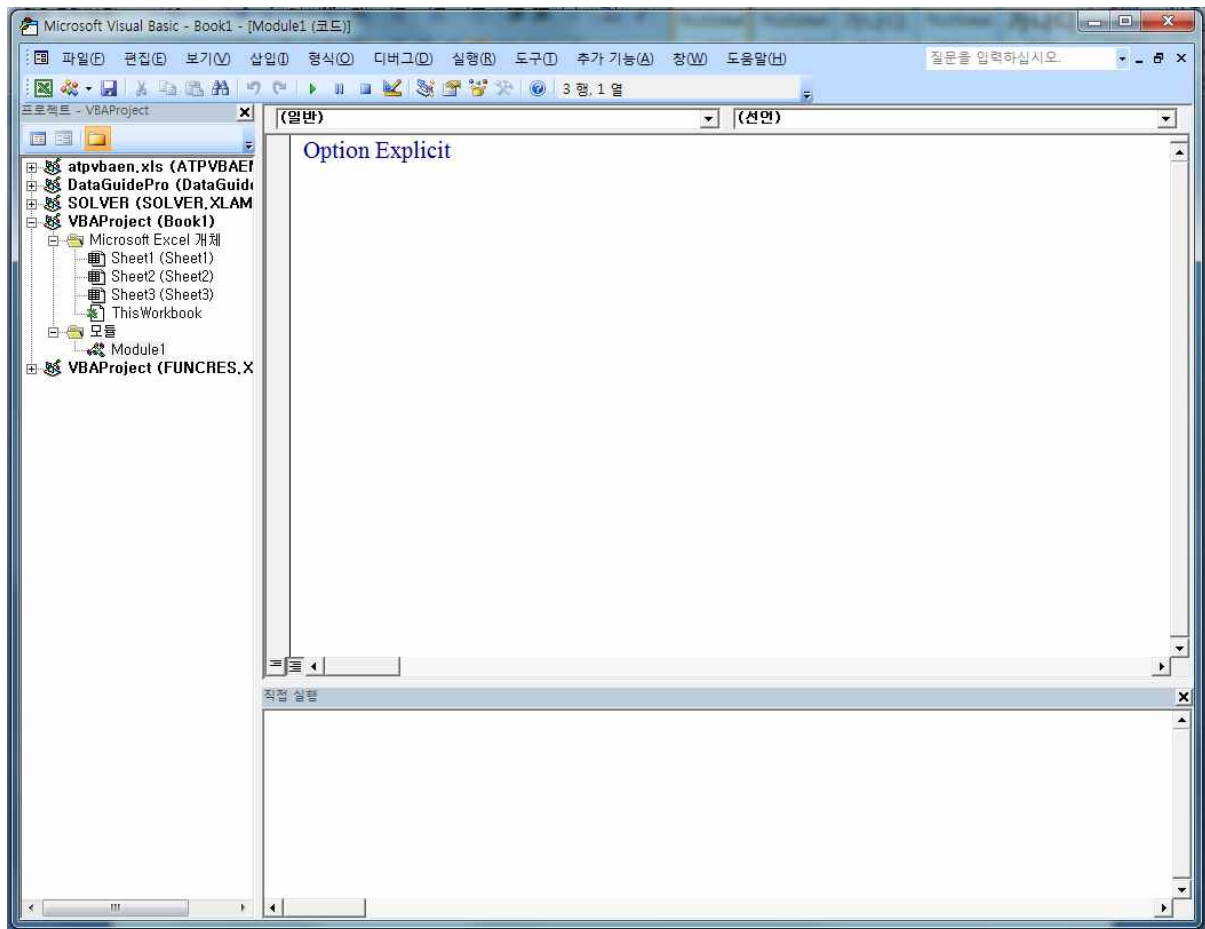
어렸을 때부터 한번쯤을 들어봤을 이 정체 모를 언어는 사실 인간의 말이 아니다...! (농담 한 거다. 웃어라. 이러한 농담에 웃을 수 있는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끝까지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이 무지한 컴퓨터가 전지전능한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계된 컴퓨터를 위한 언어이다. 사실 컴퓨터는 굵은 일을 도맡아 해주는 아주 충실한 몸종(?)이다. 인간의 아무리 사소한 명령이라고 군말 없이 묵묵히 수행해 준다. 생각해보라 살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 만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컴퓨터에게 단 하나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니 바로 멍청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매뉴얼을 짜줘야 한다. 이러한 충복을 부리기 위해서 전지전능한 인간들은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를 배워야 한다.

Hello World 프로그램

시중에 나와있는 100권의 프로그래밍 책을 사서 책을 딱! 펼쳐보면 백이면 백, Hello World 말하는 법을 가르친다. 우리는 엑셀에게 말을 가르치고 있으니, 엑셀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 보자.

Step 1. 엑셀을 실행하고, [개발 도구] -> Visual Basic 을 실행한다. 귀찮으면 Alt + F11 눌러도 된다. 자 이제 눈앞에 앞으로 엄청나게 자주 보게 될 Visual Basic Editor 창이 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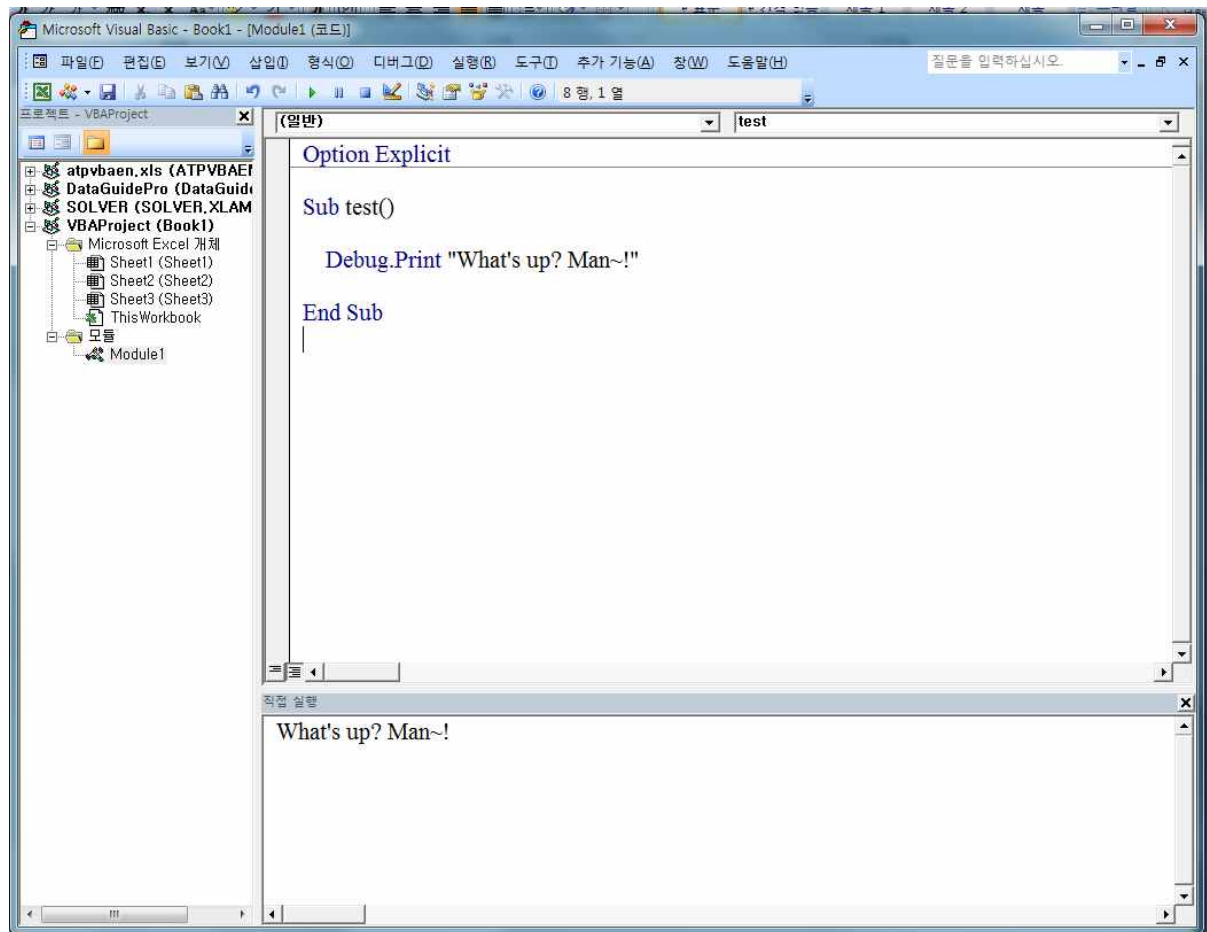
Step 2. 모듈을 추가하자. [삽입] -> [모듈]. 여기까지 잘 따라 왔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눈앞에 떠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리모컨인 Visual Basic 이다.



위와 같이 세 개로 분할 된 화면 중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곳에 컴퓨터가 알아들도록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면 된다. Option Explicit 이라고 써있는 곳 아래에 다음과 같이 입력하여 보자.

```
Sub test()
    Debug.Print "What's up? Man~!"
End Sub
```

위에 말을 친 다음 위쪽에 보이는 재생버튼 ► 를 누르거나, 혹은 F5를 눌러보자. 그러면 아래쪽의 직접실행 창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약간은 출랑거리는 Visual Basic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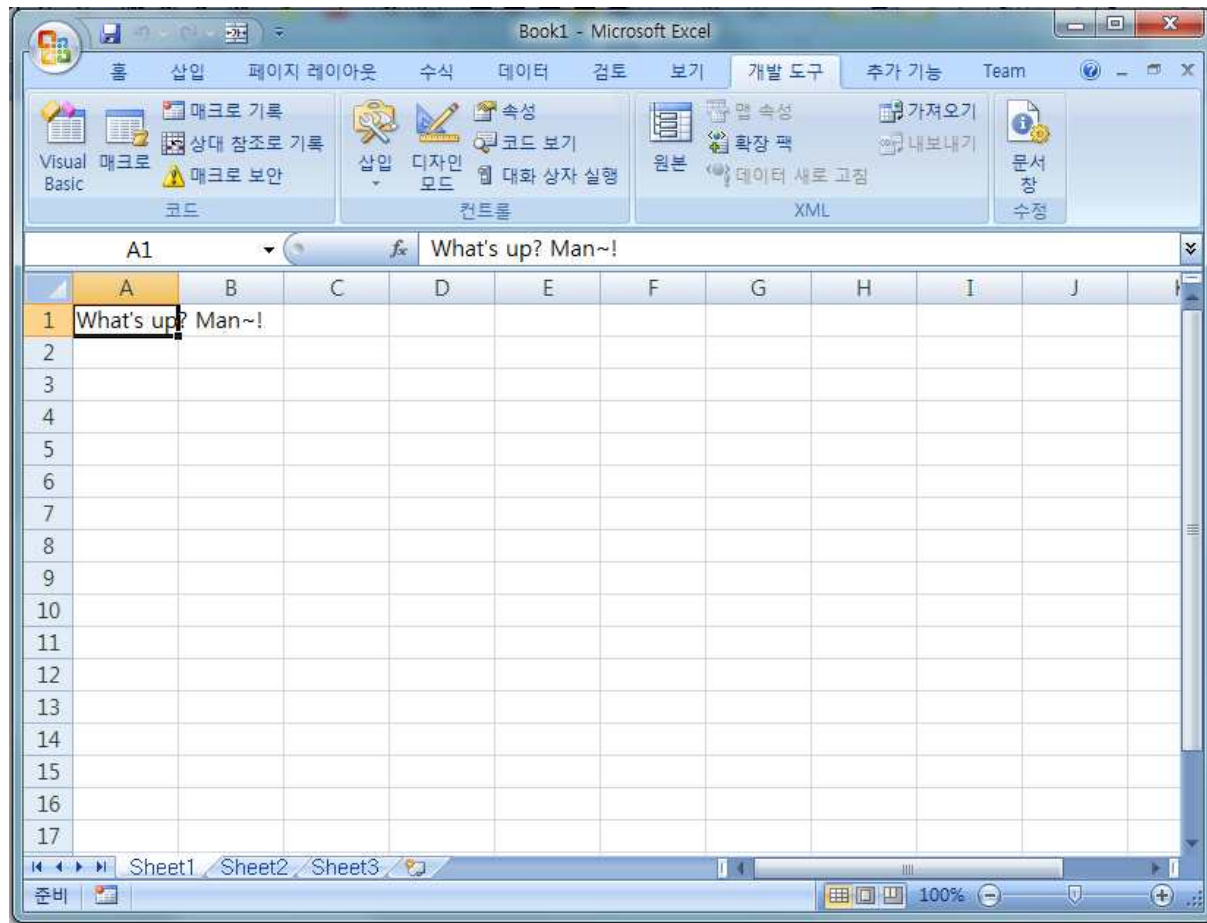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미 '아하, 저 따옴표 안에 글자를 치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말하는군'이라는 생각이 들것이다. 참고로 **Debug.Print**라는 명령어는 Visual Basic에게 직접실행 창을 통하여 Print 뒤에 따라오는 것을 출력하라는 명령어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엑셀에게 말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막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인 Visual Basic의 사용법을 알아보았을 뿐, 실제로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학생인 엑셀은 저쪽 Visual Basic Editor 창 너머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있다. 자, 이제 놀고 있는 녀석을 흔들어서 일을 하게 만들어 보자. 위의 코드를 다음과 같이 바꾼 후 F5 혹은 재생버튼을 눌러보자.

```
Sub test()
    Sheets(1).Range("A1")(1, 1) = "What's up? Man~!"
End Sub
```

이상하다! 아까와는 다르게 직접 실행 창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이번에는 우리가 리모컨을 통하여 엑셀에게 명령을 한 것이므로 직접실행 창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제 엑셀을 통하여 확인하여 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놀고 있던 엑셀이 이제는 순식간에 열려있는 파일의 첫 번째 시트, A1칸에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을 따라서 적어놨다.



기특하지 않은가? 앞으로 이 VB라는 리모컨을 통해서 엑셀이라는 녀석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대신 해줄 것이다.

위에서 쓴 코드를 분석하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자.

Sub test()

이 sub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될 테지만, 우리가 엑셀에게 시키고자 할 때 쓰는 싸인이다. 엑셀은 이 'Sub' 라는 것을 보고 '아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군.' 하고 인식한다. 우리는 엑셀을 할 일 목록에 test 라는 할 일 항목을 작성한 것이다.

Sheets(1).Range("A1")(1, 1) = " ... "

엑셀에게 할 일 목록에서 test라는 것을 해! 하고 명령하면(F5를 누르면), 엑셀은 얼른 test라는 이름의 할 일을 검색해서 위에서부터 주욱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위의 코드를 보고 엑셀은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1. 현재 활성화 되어있는 엑셀 파일의 첫 번째 시트로 간다. (기본적으로 시트가 3개가 있다)
2. 그 시트의 여러 칸 중에서 A1 칸으로 간 후, '아하 여기가 기준이군.' 이라는 생각을 한다.
3. 기준 칸을 원점으로 첫번째 행, 첫번째 열, (즉 여기서는 A1셀 자신이 된다.) 에다가 " " 안의 문장을 써넣는다.

End Sub

이 코드는 엑셀에서 이제 할 일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므로 엑셀은 다시 빈둥거리는 상태로 돌아간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가? 이번 예제를 통해서 두 가지를 머릿속에 넣고 넘어가기로 하자.

1. 우리는 엑셀에게 Visual Basic 이라는 리모컨을 가지고 이리저리 원격 조종을 할 수 있다.
2. 엑셀이라는 아이는 상당히 멍청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세세하게 알려줘야 한다.

[Homework]

나중에 배울 Range method의 감을 잡기 위해서 위 코드의 좌표를 바꿔서 한번 결과를 확인해보자. 즉, range("A1")(1, 1) 에서의 괄호 안의 좌표를 바꿔서 찍어보자. 자, 감이 좀 오시나?